

지역 소식통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이동 빨래방 봉사활동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21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세탁차량(2.5t)을 이용해 이서면 독거 어르신들의 이동 빨래를 해 주었다.

빨래방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마다 행해지는 봉사활동으로써 올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금 늦춰졌으며, 이번에는 완주군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강귀자)와 함께 진행하게 되어 첫번째 활동으로 이서면 지역 어르신들의 목은 이동 빨래 등 60여채를 세탁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서면 정 모(69, 여) 어르신은 "지난 겨울 이동 빨래를 집에서 하려니 너무 무겁고 허리도 아파서 못하고 있었는데, 봉사센터와 부녀회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세탁해 주니 너무 고맙다" 며 박게 웃었다.

김영석 이사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빨래 봉사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를 실천 하겠다" 고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작

김제시(시장박준배)는 지난 20일부터 김제시 품의 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에 총 사업비 3,000만원이 소요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곳곳이 낡은 곳이 있어 소규모 공사 등을 하면서 운영해 왔던 곳이다.

환경개선사업은 도배 장판 및 화장실 내부 공사등의 사업을 통하여 낡고 위험한내부 환경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 환경으로 변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센터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반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장소 제공

완주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자가격리 힘든 프랑스 유학생, 휴양림 숙소 지원에 '감동'

완주군이 자가격리할 장소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해외 입국자에게 휴양림 숙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 조치로 무사히 격리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끈다.

완주군 출신의 프랑스 유학생 J씨(26·여)는 코로나19 사태로 프랑스 체류가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J씨는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사람에 한해 임시생활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라북도

자가격리자 관리지침에 따라 남원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14일간 체류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매일 수십 명씩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로 꽉 차서 인재개발원 체류는 힘들었다.

J씨는 고향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자택 격리도 힘들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완주군은 군 자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고산면 자연휴양림의 이종식 주택인 카라반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가격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선제적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덕분에 J씨는 2주 동안 무사히 자가격리를 마치고 지난 17일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J씨는 "세계적인 대재난을 만나 외국에서 두려움을 떨다가 귀국했는데, 모국의 고향에서 어려움을 감싸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펴줘 너무 감사했다"며 "완주군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자가격리지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190명을 기록, 이 중 제때 남은 110여 명이 격리 중에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21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되고자 광활면 시설감자 수확 농가에 방문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광활면 감자 수확·선별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21일 코로나 19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되고자 광활면 시설감자 수확 및 선별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보태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가의 일손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1개월여 앞당겨 일손돕기에 나섰다.

평소 김제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식량작물, 원예 특작 분야의 보조금 지원에 앞장섰던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농산물 생산의 한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농업정책수립 등 농업업무 추진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연중 농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김제시 전청원 및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농번기의 경우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상반기 2회 농촌일손돕기 계획을 추진하여 기상재해 및 돌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울 경우 상황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신미란 소장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치솟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제시 공무원, 농업, 농촌진흥청 등 각종 기관단체와 함께 일손돕기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추진

올해, 신규창업가 10명 발굴 육성
창업 2년차 최대 1500만원 지원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가 2020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로 신규 창업가 육성 및 창업 2년차 지원을 통한 청년 지역정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아리'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5억 6천만원을 투입,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규 창업가 10명을 모집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등에 필요한 창업 초기비용을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창업한 25팀을 대상으로 2년차는 홍보 마케팅, 찾아가는 컨설팅



등 경영 지원에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창업 모집 분야는 김제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6차산업, 지식창업, 일반창업(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일상 문화,

전통 자산 등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할 수 있으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신규 창업가가 해당되고 관외 거주자의 경우는 사업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면 신청 가능하며,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계획이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멘토링, 프리마켓, 청년창업가 간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희망드림복지기동대, 봉사활동 전개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부호)는 21일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마당 시멘트 공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원, 성덕면사무소(면장 강기수) 직원 17명이 참여하여 취약가구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재능 기부했다.

이날 복지기동대는 자갈이 깔려있는 마당을 실버카를 이용해 출입하는 어르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당 한

켠에 폭 1미터, 길이 18미터 정도를 시멘트로 깔아드리는 등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공사가 끝나자 어르신은 "매번 외출할 때마다 자갈이 깔려 있어 실버카를 이용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시멘트 공사로 바깥 출입하는데 걱정이 없어지고 편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봉사에 참석한 최부호 복지기동대장은 "우리의 재능기부 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복지기동대가 발벗고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평생학습 강사비 선지급 결정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운영이 지연되자 강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강사비를 선지급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프로그램은 10인 이상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선정하고 시간과 학습장소를 정해,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당초 3월 중순경 98개 강좌 1300여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연기된 상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은 88개 강좌에 강사 54명으로, 희망자에 한해 강좌 시

작일 기준 4회분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선지급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1강좌당 20만원에서 32만원 사이이며 총 지급금액 2000만원 규모다. 선지급을 받은 강사는 향후 강좌가 운영되면 기존수업에 연장수업을 4회 진행해야 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평생학습 강사는 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군은 신청자에 한하여 5월초에 강사비를 선 지급할 예정이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사들이 이번 선지급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